

제99回

5月 9日

- … 본회가 주최한 제99 … ○
- … 회 발명교실이 지난 … ○
- … 5월 9일 발명장려관 … ○
- … 연구실에서 개최됐 … ○
- … 다. 매월 둘째 토요 … ○
- … 일 오후 1시 30분에 … ○
- … 개최되는 발명교실 … ○
- … 은 이 달에도 1백여 … ○
- … 명이 참석하여 성황 … ○
- … 을 이루었다. 이날 … ○
- … 발명교실에서는 이 … ○
- … 데아 알파 박승일 사 … ○



파워 클러치 발명가 이데아 알파 박승일 사장

지난 4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20회 국제 발명 신기술·신제품 전시회에서 운송수단부문 금상을 차지한 박승일 사장.

그의 금상 수상은 개인의 명예이기도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뒤늦게 시작한 우리 자동차산업에도 큰 영광을 주는 쾌거였다.

독일, 프랑스 등 자동차 선진국에서 모두 31개의 발명품이 출품된 운송수단의 발명품은 자동차 클러치용 진공배력 장치로 일명 파워 클러치.

이 기기는 기어변속시마다 클러치 페달을 밟아야 하는 수동변속기의 번거로움을 덜

고 클러치를 밟지 않고 기어봉에 부착된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자동적으로 기어변속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리고 자동변속기인 오토매틱 자동차의 가격보다 약 70%나 싸고 연료소모도 20% 가량 절약된다고 하니 제네바 전시회에서 금상을 받은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렇듯 훌륭한 발명품을 만들어내기까지 박사장이 걸어온 길은 너무도 힘들고 험난했다.

83년초 자동차회사의 판매과장으로 일할때부터 인연은 시작된다.

그 당시 박사장의 하루일과는 서울외곽에 있는 시내버스 회사에 돌아다니며 차의 성능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일이었고 이곳저곳을 신속히 뛰어다니기 위해 업무용 차를 몰고다녔다.

80년대 중반에는 지금처럼 교통체증이 지금처럼 심각하지는 않아 그가 몰고다녔던 수동변속기 차량은 문제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오토매틱 자동차를 몰아본 박사장은 수동변속기의 불편함을 깨닫기 시작했다.

「5시간을 운전하면서 클러치 페달을 밟는 횟수를 세어보니 약 200회나 되었습니다.

發明教室

成功事例 등 發表

- … 장의 성공사례 발표 …○
- … 에 이어 金寬衡 본회 …○
- … 상근 이사의 「발명 …○
- … 의 창출과 사업」에 …○
- … 대한 강의와 洪載日 …○
- … 변리사의 「산업재산 …○
- … 권제도」에 대한 강 …○
- … 의와 토론이 있었다. …○
- … 발명가의 성공사례 …○
- … 를 간추려 소개한다. …○
- … <柳泰洙 記> …○



지금처럼 교통체증이 심한 서울시내에서는 7~800회 정도 될 겁니다. 더군다나 하루종일 운전을 해야 하는 운전기사의 클러치 밟는 횟수는 엄청나겠죠.」

이렇듯 수동변속기의 불편함을 생각하게 된 박사장은 낮에는 직장생활, 밤에는 정비공장을 찾아다니며 뜯었다 붙였다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후 10여년의 각고 끝에 결국 파워클러치를 개발한 박사장.

파워 클러치는 우선 자동차의 기어봉에 보턴을 설치하여 클러치 페달 조작을 전기적 신호로 가능하도록 하였고 운전자의 운전상태, 차량의 주행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지하여 자동차 클러치용 진공 배력장치를 자동제어하도록 마이컴을 부착했다.

그 결과 극심한 교통체증

에서도 클러치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클러치 페달을 조작미숙으로 시동이 꺼지거나 떨림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파워 클러치가 놀라운 발명품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바로 자동변속기의 단점 까지 극복했기 때문이다.

자동변속기의 단점은 우선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다.

대당 100만원이 넘는 가격은 일반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연료소비가 수동보다 20% 더 들어간다는 것도 마찬가지.

또한 고장이 났을 경우 수리비가 많이 들고 가속성과 순발력이 수동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박사장의 파워 클러치는 대당 30만원 내외의 저가와 자동에 비해 연료가 적게 들고 구조가 간단해서 고장률이 매우 낮다.

가속력과 순발력이 우수한 파워 클러치는 또한 고장이 났을 경우 기존의 클러치 페달을 밟거나 메인 스위치를 차단시키면 종래의 수동변속 방법으로 주행할 수 있다.

결국 파워 클러치는 수동과 자동 클러치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결합한 발명품인 것이다.

「신체장애인들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도 비싼 자동변속기 자동차 대신에 조작이 간편하고 저렴한 파워 클러치가 부착된 수동변속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어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어렵게 발명에 성공하여 기업화할 계획인 박사장은 이 파워 클러치로 자동차 산업과 국민생활 향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